한국 개신교 근현대 훼불 'A to Z' 망라

정행 스님, 박사학위 논문서 훼불 원인 분석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훼불' 주제로 박사 논문은 처음
해방부터 현재까지 훼불 576건
정교분리 위배 311건으로 최다

그릇된 선교관 · 정치화 주요원인
상호 바른 이해있어야 훼불없어
경주 동국대서 학술총서 예정돼

잊을 만하면 벌어지는 개신교 신도들의 훼불 역사를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한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대구 보원사 주지 정행 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대학원 불교학과)은 '훼불의 원인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한국 개신교의 훼불을 중심으로' 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훼불' 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는 정행 스님의 논문이 처음이다.

정행 스님은 개신교의 훼불을 유형별, 연대별로 분석해 원인을 고찰하고, 대응 전략 등을 모색했다. 스님에 따르면 1945년부터 2021년까지 △살인 · 방화 △파괴 · 훼손 △정교분리위배 △종교자유침해 △비방 · 폄하 등으로 이뤄진 훼불 건수는 총 576건으로, 가장 많은 훼불 유형은 정교분리위배(311건)였다. 가장 많은 훼불이 일어난 년도는 2010년으로, 이 해에만 50건의 훼불이 일어났다. 연대별로는 1995~1999년대에 급격하게 훼불이 증가했으며 2005~2009년대 175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정부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훼불이 발생한 정부는 이명박 정부(2008~2013)로 193건의 훼불이 발생해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정부마다 발생한 유형별 특징도 있다. 살인 · 방화는 김영삼 정부 당시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대중 정부 때에는 29건의 불상 파괴 · 훼손이 이뤄져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교분리 위배는 이명박 정부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43건이 이뤄졌다.

시기별로 유행했던 훼불 유형도 차이가 있다. 살인 · 방화와 파괴 · 훼손은 1990~1994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해 2000년대 후반에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정교분리 위배는 해방 직후 많이 발생하다가 1980년대까지는 감소 추세였으나 2005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였으나 2010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정행 스님은 "방화 · 파괴 등의 훼불 행위와 개신교 신자 수 증가와 직접 관계는 없으나 정부가 개신교 편향정책을 펴고 공직자가 정교분리를 위배하고 종교자유를 침해할 때 개신교 신자 수는 증가했다"면서 "1995~2005년 사이에 개신교 신자는 소폭 하락했지만 2015년 인구센서스에서 다시 상승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정교분리 위배와 종교자유침해를 통해 개신교 교세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개신교의 훼불 원인에 대해 개신교 내부 원인과 불교계 내부 원인으로 나눠 분석했다. 개신교 내부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은 배타적인 선교관과 정치세력화다.

정행 스님은 "보수 개신교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개신교 교세를 이용해 행정부의 종교정책과 입법부의 법률 제정,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들의 정치세력화는 헌법의 정교분리 위배하는 일이고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일이지만 개신교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의 배타성은 이웃 종교와의 갈등을 가져왔고, 개교회주의는 생존을 위해 공격적인 선교활동을 부추겼다"며 "정부와 불교계에 사이의 골 깊은 갈등 저변에는 한국 개신교의 배타적 근본주의적 신앙 풍토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교계 내부 원인으로는 종권 다툼 등 내분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던 점을 꼽았다. 스님은 "불교계는 승단 중심의 운영으로 재가신도조직이 약하고 해방 이후 종권 다툼으로 내분이 끊이지 않아 종교편향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대응전략으로는 △종교간 협력 △불교계의 자성 △훼불 예방 대책 수립 및 신속한 대응 △종교차별 방지 교육 및 홍보 △불교 바로 알리기 △시민사회단체 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특히 정행 스님은 불교를 바로 알리는 작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불교를 바로 알리는 일을 해야 하며 불교문화유산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면서 "불교를 바로 알리는 일이 불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사라지게 하고 훼불 행위를 방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석길암)은 정행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 보완해 올해 하반기 총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2월 12일 봉행한 기도회.

사노위, "코로나 백신 피해 방치 말라"

2월 12일 희생자 추모 기도회
피해 진상규명 · 대책마련 촉구

"정부와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을 해 달라."

2월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추모기도회' 에는 백신 접종 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 40여 명이 참석해 피해 진상규명과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도회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 이하 코백회)가 백신 희생자 추모와 함께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도회에 앞서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하면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것이 살아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것은 물론 백신부작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이번 기도회의 취지를 밝혔다.

코백회에 따르면 2월 6일을 기준으로 백신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1835명이다. 주요 이상반응 총 신고건수는 44만 9972명이다. 백신을 맞고 유산된 아이들은 2056명, 총 누적 사망자는 3891명에 달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기도회에는 지난 7일 '코로나19 백신피해 보상 특별법' 을 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도 함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적극 보상하는 것과 대통령 직속의 코로나19 피해판정 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1~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기도회는 사노위 스님들의 기도회에 이어 추모시 낭독, 추모공연, 피해사례 증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도회 후에는 청와대까지 가두행진이 이어졌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도 넘는 종교편향에 모니터링 나선다

종평위, 2월 14일 모니터링 논의
홈페이지 제작 · 인력충원 등 검토
사업 진행 · 예산 파악해 사전 예방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가 보다 폭넓은 종교편향 예방과 저지 활동을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종교평화위원회는 2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교편향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종교평화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의 핵심은 각종 언론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행해지는 종교편향 행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담당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사전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종교편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지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형태와 진행 정도, 예산지원 등도 파악 가능하다는 게 종평위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종교 편향을 감시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단체와의 인력 연계로, 모니터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종평위의 이러한 모니터링 사업은 최근 전라남도 신안군 기점 · 소악도가 '예수 12제자' 로 도배된 사실이 알려지며 기폭제가 됐다.

신안군은 '천사(1004)섬'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수년 전부터 대대적인 관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점 · 소악도에는 베드로' '안드레아' 등 예수 12제자의 이름을 본뜬 예배당과 순례길 등을 만들었고 건축물의 실제 모습은 러시아 정교회를 닮은 지붕과 십자가가 있는 첨탑 등의 모습을 띄고 있어 "지자체가 앞장서서 기독교 성지를 조성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해당사업은 지역종교계 주도가 아니라 예배당이 조성된 토지 대부분을 지자체가 직접 매입, 혈세를 투입해 지자체가 나서 사업에 추진했다는 점에서 종교편향 논란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평위는 현재 신안군에 사업계획안과 예산, 예배당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상태며 교구본사와 협의, 항의공문 발송과 성명서 발표, 집단 의사표현 등 향후 대응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평위원장 도심 스님은 "이번 모니터링 사업의 목표는 앞으로 이 같은 종교편향 사례가 시도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에 있다"며 "특정종교를 위한 국가예산 편성을 감독하는 한편 발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스템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측이 수년간 문제로 지적한 국립합창단 종교편향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합창단은 2월 17일 조계종 사회부와 갖은 간담회에서 올해 공연에서는 종교색을 빼고 공연하겠다며 선곡 개선을 약속했고 이사회를 통한 규칙을 개정, 지난 50년 동안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은해사 차기 주지후보에 덕조 스님 당선

2월 17일 산중총회서 확정
후보 2인 사퇴로 단독출마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차기주지 후보에 제주 약천사 주지 덕조 스님이 선출됐다.〈사진〉

은해사는 2월 17일 차기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후보로 출마한 덕조 스님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번 산중총회를 앞두고 은해사 주지후보로 등록한 스님은 애초 법일 스님과 덕조 스님, 불산 스님 세 명이었으나 법일 스님이 2월 15일 사퇴입장을 밝힌데 이어 불산 스님도 사퇴함에 따라, 덕조 스님이 단독후보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이날 덕조 스님은 당선증을 전달받고 "동곡 일타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어른스님을 잘 모시고 문도문중 스님들과 소통하면서 지혜를 나누겠다"며 "앞으로 은해사가 대중의 화합과 포교 중심지로서 위상을 높이고 신행과 전법도량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덕조 스님은 1984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시미계를 수지하고 1987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통도사승가대학와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했으며 2013년 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하양포교당 · 영천 진불암 · 경산 불굴사 주지,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 포교원 포교국장과 총무원 사회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제주 약천사 주지를 맡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고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470-3276,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제5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학술지 『한마음연구』 발간
- **발간시기** : 연2회(2월 28일, 8월31일)
-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시기** : 연중 접수
-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원고료 : 소정의 금액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 시)

제4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중인 대학원 재학(수료)자
- **선발인원** : 0명
-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제12회 계절발표회 개최 ◎
- **일시** : **2022. 3. 19.(토) 13:30~17:4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
- **좌장** : 안성두(서울대)
  - □ 제1주제 (『범망경』 주석서에 나타난 계체론 연구)
    발표 : 법장 스님(해인사승가대학)
    논평 : 1. 이자랑(동국대) 2. 고승학(금강대)
  - □ 제2주제 (대행선의 사상적 체계와 그 의의)
    발표 : 김재권(능인대학원대학)
    논평 : 1. 이상호(서강대) 2. 이석환(동국대)

※ 자세한 내용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